

# 1980년대 이후 美國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地理學, 地理教育, 그리고 教育政策의 關係

徐泰烈\*

HSGP 이후 Social Studies 속에서 거의 사라져 가던 美國의 學校地理가 1990년대에 “中核教科”로 다시 부상하는 動的 過程은, 地理教育의 位相이 혼들리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여러 측면에서 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 본고는 1980년대 이후 美國의 地理教育 復興運動을 主要爭點, 主導的 役割遂行者, 主要 成果에 따라 제 1기(1980년~1984년), 제 2기(1985년~1989년), 제 3기(1990년~현재)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이를 통해 地理教育의 개선을 위한 示唆點들을 추출하였다.

**主要語：**地理教育指針書, GENIP, GEP, 地理評價構造, 長期的 行動戰略

##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學校教育課程에서 地理 教科의 位相은 국가의 教育政策, 학부모 및 일반대중의 요구, 教育思潮 등이 만들어 내는 地理教科의 外的 條件과, 地理學者, 地理教育專門家, 地理教師들의 研究業績과 實踐, 關心 및 改善意志와 같은 內的 條件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內的, 外的 條件에 따라 地理教科의 位相은 국가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달라진다.

물론 獨일, 프랑스와 같은 國家들에서는 地理가 獨立教科이고 부동의 位置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몇몇 國家에서는 1980년대 後半 內的・外的 條件의 變화로 地理教科의 位相에 變화가 일어났으며 그 傾向은 주로 獨립과 목화 되는 것 이었다. 日本의 경우 高等學校에서 地理가 歷史와 더불어 “地理・歷史”라는 獨立教科를 형성하였고, 英國의 경우 地理는 國家敎育과정에서 8개 “根本教科”에 속하여 獨立教科의 位置를 재확인하였으며, 美國의 경우도 地理가 國家敎育課程으로의 개혁속에서 “中核教科”로 인정받음으로써 Social Studies의 한 부분에서 벗어나 獨립교과로 나아갈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 6 차 教育課程의 개정에서 몇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헌신적인 학자들의 노력으로 韓國地理가 다시 共通社會속에서 필수로 남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주요국가에서의 추세와 역행하여 統合社會科의 論理에 따라 地理가 그 속으로 흡수되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국내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社會科의 모형으로 삼고 있는 美國에서조차도 地理가 獨立教科→Social Studies의 일부→독립교과화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Social Studies의 일부로서 그 位相이 극히 낮아져만 가던 美國의 學校地理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動的 過程과 그 原因에 대한 分析은 우리나라의 地理敎育의 反省과 改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국・내외에서의 地理敎育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1980년대 이후 美國의 地理敎育 復興運動의 전개과정을 정리해보고, 여기에서 드러난 地理學과 地理敎育의 關係, 地理學 및 地理敎育 관련단체 및 個人的 活動戰略, 國家敎育정책 변화에 대한 對應策과 관련한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약 10년 이상에 걸쳐 전개된 美國의 地理敎育復興運動을 主要爭點, 主導的 役

\* 梨花女大 講師

割遂行者, 主要成果와 그 内容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시기로 나누어 파악하였다.<sup>1)</sup> 제 1기 (1980년~1984년)는, HSGP 이후 급격하게 쇠퇴해 가는 위기상황에 빠진 地理가, 美國의 국가 위기와 教育改革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생할 기회를 맞게 되고, 『地理教育指針書』가 부흥운동의 근거를 제시하는 시기이다. 제 2기 (1985년~1988년)는 『地理教育指針書』를 토대로 地理學 및 地理教育 관련단체들의 협력체제가 확고히 구축되어 최초로 地理학 관련 4개 학술단체가 地理教育의 復興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이다. 제 3기 (1989년~1993년)는 地理學 및 地理教育 관련단체들의 공동노력의 결과들이 가시화되어 國家主導로 公式的 評價體制를 갖추면서 地理教育이 제도화되는 시기이다.

## 2. 美國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

### 1) 제 1기 (1980년~1984년) : HSGP에서 "Guideline"으로

이 時期는 地理教育의 復興의 토대를 마련한다. 즉 地理教育 内的으로는 주로 몇몇 탁월한個人의 役割에 의해 學校教育課程에서 地理를 소생시키는가 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美國의 教育改革의 분위기를 타고 『地理教育指針書』가 등장하여 미국 전역에 걸친 地理教育復興運動의 구심점이 구축된다.

① 地理學 및 地理教育의 弱化와 國家의 危機  
美國의 地理教育에서 가장 혁신적인 變化를 가져온 HSGP는 훈련된 地理教師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Lanegran, 1991, p. 48) 1970년대 말에 이르면 일선학교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HSGP가 의도했던 전통적인 學校地理와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地理教科와 學校教育과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대륙중심의 흥미없고 의미없는 情報만을 나열함으로써 부정적이고도 낡은 이미지를 가진 世界地理만이 中學校 7학년에 남게 되었다.<sup>2)</sup>

또한 地理教育外의으로는 Social Studies라는 教科속에 地理가 포함되는 美國의 特殊性과 Social Studies에서의 爭點의 變化는 地理의 位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즉 초기의 Social Studies에서 地理가 歷史, 公民과 함께 3대 중심 영역으로서 안정된 地位를 가지는 듯하였지만, 새로운 실용적 科目의 등장과 1960년대초 제반 社會科學의 학문적 입장들을 강조하는 New Social Studies<sup>3)</sup>의 등장은 地理內容을 더욱 축소시켰다. Hill(1981, p. 237)에 따르면, 1960년대 말에는 인종차별 철폐 등 市民人權運動의 영향으로 공민분야 내용영역이 강화되었고, 1970년대에 등장한 “環境教育”에서는 지리보다 타학문과 연대한 자연과학적 배경을 가진 生態主義者들의 입장만 강화됨으로써, Social Studies에서의 지리는 더욱 위축되었다. 이와 같은 지리와 관련된 주변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學校地理의 弱化現象은 더욱 심화되었다.

1982년의 조사에서는 미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의 9%만이 지리를 듣고 있었는데, 이는 1960년대에 비해 무려 60% 이상이나 그 선택률이 하락한 것이었다(Lanegran, 1991, p. 48). 또한 이러한 초·중등학교에서의 地理의 약화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地理 전공학생들의 질적 저하와, 地理학 관련 학회에서의 地理教師活動의 약화(Natoli, 1984, p. 90)를 가져왔다.

그리고 1980년대초에는 초·중등학교에서의 地理의 弱化와 함께, 대학에서의 地理學도 동일한 危機意識을 느끼게 되었으며<sup>4)</sup>, 이 시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대학 地리학에 충격을 더해 주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양극체제의 붕괴와 多元化된 國際社會의 등장으로 超强大國으로서의 美國의 獨占的 position가 흔들리자, 이의 회복을 위하여 大學 학부과정에서 “外國語教育”과 “國際研究”(international studies)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世界教育”(Global Education)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안이 당시 Carter 행정부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1979년에는 “外國語教育과 國際研究를 위한 委員會”(이하 CFLIS: Commission on Foreign Language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조직되고, 同委員會는 “지혜를 통한 힘”(strength through wisdom) 보고서를 통하여 대학의 국제학습에 필수적인 教科들을 제시하게 된다. 이때 外國語, 政治學,

地域研究、社會學 等지어 공학과 미술까지도 포함되었지만(Hill, 1981, 287), 地理學은 언급조차 되지 않음으로써 대학의 지리교육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에 따라 AAG는 1980년에 즉각적으로 Chicago 대학의 Chauncy Harris를 단장으로 하는 “地理學과 國際研究委員會”(Committee on Geography and International Knowledge)를 만들었다. 同委員會는 상기한 CFLIS의 報告書와 별도로 1982년에 “地理와 國際知識”(Geography and International Knowledge)이라는 독자적인 보고서<sup>5)</sup>를 작성하여 미국 전역의 교육계에 배포함으로써 國際研究에서의 地理의 역할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으며, 人間-環境關係(equation), 地圖的表現, 空間的相互作用, 領域(realms)과 地域, 世界的觀點(global perspective)와 같은 개념들이 國際知識의 획득에 공헌할 필수적인 地理概念들임을 밝혔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국제경제 및 교역환경의 변화로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정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의 하나로 교육전반의 개혁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때 1979년 장학 및 교육과정 개발연합회(ASCD: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의 “教育의 要諦”(Essentials of Education)(郭相萬·金英駿, 1989, p. 18), Adler의 “Piadeia 教育改革案”<sup>6)</sup> 등에서 제안된 “基礎教育의 復歸運動”(Return or Back to Basics)이 미국의 教育改革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1981년에 발족된 美國教育振興委員會(이하 NCEE: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는 1983년 “危機에 처한 國家: 教育改革의 緊急性”(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라는 報告書를 작성하였는데(Gardener, 1986, 2), 이는 “기초로의 복귀” 사상에 바탕을 둔 1960년대 이후 최대 教育改革의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 報告書는(韓國教育開發院, 1991, pp. 95-134), 2300만에 달하는 미국인이 읽기, 쓰기, 이해 등 기초적인 것에 기능적인 문맹이고 中等學校教育課程은 어떤 중심적 목적이 결여된 간이식당식 교육과정(cafeteria-style curri-

culum)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美國教育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교육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혁방향으로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社會 3년, 컴퓨터 6개월 등을 이수케하는 基礎科目 학습의 강화, 4년제 대학의 입학요건의 강화, 교사의 전문성 향상 등 5개 항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同 報告書에서 地理의 중요성이 몇차례씩이나 언급된 것이나, 새로이 제시될 社會科 3년의 基礎科目의 強化方案은 基礎科目으로서 地理를 복구할 단서가 되었다. 이러한 “基礎로의 復歸運動”的 흐름에 地理學 및 지리교육계에서도 호응하여, 地理學의 기초이면서 그리고 地理學의 종합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地域地理로의 복귀”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地理도 이러한 기초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Hart(1982)에 의해 표면화된 이러한 움직임은 Lewis(1985)의 회장 취임연설로 이어져 갔다.

## ② 西部로부터의 變化

敎育改革의 흐름속에서 地理敎育의 개선을 위하여 한편에서 ‘Guideline’의 작성을 위한 전국적인 學會次元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동안, 지방수준에서 自發的인 노력들도 나타난다. 그 진원은 캘리포니아주인데 L.A.의 캘리포니아대학(UCLA) 지리학과의 Tom Mcnicht와 Christopher L. Salter, 캘리포니아 남부의 San Diago 주립대학의 F.P. Stutz의 활동은 매우 두드러진 것이었다.

Salter(1986, p. 5)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地理敎育의 改善運動은 1982년부터 시작된다. 1970년대 말부터 고조된 敎育改革의 흐름속에서 신임 주지사와 교육장이 개혁에 강력한 支持를 보냈고, 1983년 주상원에서 敎育改革案인 상원안 813호가 통과됨으로써 敎育改革은 가속화 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전체의 敎育課程의 지침이 되고 학생들에게 요구할 知的內容의 필수적인 因子들을 제시하는 “標準敎育課程模型”(이하 MCS: Model Curriculum Standards)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3년 MCS를 요구하는 상원법안 813

## 1980년대 이후 美國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

호가 나오자, 교수, 행정가, 교사들이 참여하여 UCLA 地理學科 중심으로 운영하던 地域社會 地理學者 포럼은 캘리포니아주에서의 大學前教育 課程(pre-collegiate curriculum)에서 地理教育을 확대하는데 헌신할 전문적 조직인 캘리포니아 지리연맹(이하 CGA: California Geographic Alliance)으로 전환하였다. 이 연맹(이하 원어대로 Alliance)組織은 大學이나 高等學校의 教師組合의 형태와는 달리, 가능하면 다양한 학교수준을 가진 教育者들을 수직적으로 統合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조직은 Tom McKnight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학술기관간 교류 프로그램 연구소(이하 CAIP: Center for Academic Interinstitutional Program, 당시 소장 J.F. Lara)의 지원으로 모든 수준의 地理學 관련자들간 그리고 地理學 관련자와 教育行政家들간의相互作用을 촉진시켰으며, 이는 훗날 NGS의 뿌리조직운동의 典型이 된다. 또한 이 조직은 캘리포니아주 教育담당관을 초청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결과 C.L. Salter는 MCS 作成委員會의 共同委員長으로 추천됨으로써 MCS의 작성과정에서 보다 많은 地理를 요구받았다.

한편 San Diago에서의 지리교육의改善은 Stutz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개인적 노력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sup>7)</sup> 이 지역에서는 지리가 1962년에 필수과목에서 사라졌지만, “基礎로의 復歸”에 따라 1982년부터 시작된 教育改革에서 Stutz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고등학교에서 지리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코스인 “世界의 歷史, 文化, 地理”가 등장하였다. 이로써 지리내용이 필수과목에 등장하였으며, 이 과목은 1985년에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다. 이렇게 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教育課程에 地理를 소행시키고 또 확대할 기회를 맞게 되었다.

### ③ “地理教育指針書”的 登場

학교에서 地理教育을 부활하려는 地理學 및 地理教育界의 노력으로 1982년 텍사스 San Antonio에서의 AAG와 NCGE 집행부의 合同會議가 열렸을 때, 地理教育의 改革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고 성공하기 위해 획득되어야 할 綜合的 目

標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되었다(AAG, 1990, p. 1). 즉 1) 자리에서 現職教師教育(in-service teacher education)과 職前教師教育(즉 예비교사교육, pre-service teacher education)을 향상시키는 것, 2) 대학수준에서 地理教師養成教育을 위한 指針書를 제공하는 것, 3) 전국적인 망으로서 일선교사와 大學의 地理學者들간의 組織的 關係를 개발하는 것, 4) 地理의 教授-學習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5) 地理教育의 改善을 위하여 고안된 활동들을 대중들이 계속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후속적으로 1983년 캘리포니아 San Diago에서 열린 AAG(당시회장 John S. Adams)와 NCGE(당시회장: Richard G. Boehm)의 합동회의에서는 Salvatore J. Natoli를 위원장으로 Richard G. Boehm, James Kracht, David A. Lanegran, Janice Monk, Robert Morrill 등 6인의 “地理教育 共同委員會”(Joint Committee on Geographic Education)가 구성되어 ‘Guideline’ 作成에 들어갔으며, 同委員會는 1984년 “地理教育을 위한 指針書”(Guideline for Geographic Education, 이하 지침서)를 완성하였다.

이 “지침서”는 미국 국토에 대한 基本的 地理知識과 世界에 대한 이해능력이 부족한 現실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世界속에서 전개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場所와 時間에 따른 장소들 간의 관계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는 地理는 교양있는 市民教育에서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5대 根本主題, 地理와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 초·중등학교의 地理內容의 스코프와 시퀀스 그리고 그 내용해설, 고교지리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에서 제시된 5대 근본주제는 향후 전개될 地理教育復興運動에서 중심적 도구가 되었으며, 地理內容에 있어서는 HSGP에서 다루지 못했던 自然地理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이었다.

5대 根本主題는 6인의 公동위원회의 구성원 Lanegran(1973)이 일찌기 그의 저서에서 밝힌 지리학의 基礎概念들과 연구절차들을 결합하여 주제적 수준으로 정선한 것인데, 미네소타주에서 실현적용을 거쳐 최종적으로 “位置와 立地”, “場

## 표 1. 5大 根本主題

位置와 立地(Location: Position on the Earth's Surface)	지구표면상에서 人間과 場所는 위치를 가진다. 여기에는 相對的 位置와 絶對的 位置가 있다.
場所(Place: Physical and Human Characteristics)	自然 및 人文的 特성이 결합된 空間을 뜻하며, 지구상의 모든 場所는 그것에 의미를 주고 다른 장소와 구별하는 독특한 特性을 갖는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비추어 그 特性을 지각한다.
場所內의 相互關係(Relationships within Places: Humans and Environments)	이는 人間과 環境과의 關係로 표현되며, 인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정치적 상황 그리고 기술적 능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연환경을 변경하거나 자연환경에 적응한다.
移動(Movement: Human Interacting on the Earth)	지구상의 人間의 相互作用으로 생기는 행위들을 말한다. 주로 교통과 통신에 의한 인간, 물질, 아이디어의 移動은 장소간의 相互依存 關係를 만든다.
地域(Region: How They Form and Change)	地域은 지리학연구의 기본단위이며,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地域은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유용한 단위이면 지표위의 사상의 이해에 필요한 脈絡을 제공한다.

(Joint Committee, 1984, 3-8).

所”, “場所내의 關聯들”, “移動”, “地域”이 채택되었다(표 1). 이 5대 根本主題는 그 성격상 1960년대부터 地理學者와 地理教育 專門家들이 줄곧 찾아왔던 地理學의 構造를 보여줄 一種의 ‘基本概念’이며, 스스로가 그 아래에 많은 하위 개념들과 아이디어들을 포괄함으로써 초, 중, 고교 전체 地理教育에 걸쳐 제시된 中心초점(주제 또는 지리교육내용의 하위영역 등의 복합체)들을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組織概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指針書”에는 초·중등학교의 地理內容의 ス코프와 시퀀스가 제시되었으며<sup>8)</sup>, 각 학년에서 다를 내용들을 地理的 概念과 學習結果(Learning Outcomes)로 분류되어졌다. 전자는 5대 根本主題와 그와 관련한 概念 그리고 이것을 다시 각 학년별로 묶어줄 內容中心焦點(개념화된 주제의 초점)으로 제시되었고, 후자는 각 학년 단계별 內容中心焦點에 따라 일종의 行動的 學習目標처럼 제시되어 있다.

## 2) 제 2기(1985년~1989년)：“地理教育指針書”에서 大衆으로

이 시기는『地理教育指針書』의 5대 근본주제를 중심으로 復興運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미국

의 지리학관련 4대기구가 모두 참가하는 GENIP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GENIP과 개별기구별로 地理教育復興을 위한 體系의 活動計劃 및 그에 따른 戰略, 長期的 實行計劃이 세워지고, 그 實踐이 이루어진다. 특히 NGS(National Geographic Society)의 GEP은 5가지 활동전략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지리의 부활을 위한 內的, 外的 條件을 성숙시킨다.

### ① GENIP의 形成

1984년 “指針書”가 완성된 뒤 1985년 “指針書作成共同委員會”委員長이었던 Salvatore J. Natoli는 기존의 教授資料의 評價 및 새로운 開發, 現職 및 職前 地理教師教育의 향상, 다양한 教育活動과 弘報活動을 실행할 要員의 훈련, 공식 단체와의 協同, 教育課程資料의 配布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指針書實踐計劃書’를 작성하였는데, 이 전국적인 과업은 미국의 주요 지리학 및 지리교육 관련단체들과의 協力を 통한 안정적인 管理構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그 實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Morrill, 1990, p. 6)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곧바로 수용되어 마침내 美國의 4대 地理學 및 地理教育 관련기구인 AAG, NCGE, NGS, AGS(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가 역사상 최초로 共同 參與하는 프로젝

## 1980년대 이후 美國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

트인 “地理教育實踐 프로젝트”(이하 GENIP: Geographic Education National Implementation Project)가 1985년 7월에 만들어졌으며 현재에도 계속 實行 중에 있다.

GENIP(Morrill, 1990)는 주로 NCGE가 財政을 맡고 있지만 다양한 기관, 회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4대 기구에서 선발된 代表 즉 AAG 3명, NCGE 3명, NGS 2명, AGS 1명으로 구성된 運營委員會에 의해 실행된다. 그리고 GENIP는 4대 모단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組織을 가지지 않는 實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會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運營委員이 아니라도 특정한 프로젝트의 調整官(coordinator)을 선정한다.

GENIP은 地理教育復興運動을 총괄하면서도 여러가지 活動을 스스로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인 活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and McNally 출판사의 지원금을 받아 “指針書”에서 제시된 内容을 보다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즉 指針書에 제시된 内容中心焦點(central focus)과 5대 根本主題를 보다 발전시켜, 초·중등학교에서 地理授業을 통하여 제시할 “核心 아이디어”와 “學習機會”(learning opportunities)를 詳細化한 “유치원-6학년 지리”(GENIP, 1987)와 “7~12 학년 지리”(GENIP, 1989)를 작성하였다. 둘째, NGS의 지원으로 경관과 5대 근본주제를 설명한 GENIP Map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하였으며, 地理教科書에 대한 비교분석을 행하여 일선교사들의 교재선택에 도움을 줄 “Text Assessment in Geography”(Patrice, 1989)를 만들었다. 셋째, 地理概念 및 技能들을 Social Studies 教育課程과 어떻게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Strengthening Geography in the Social Studies”(1988)를 NCSS 도움으로 출판하였다.

따라서 GENIP은 美國의 地理學 및 地理教育 관련 4대 기구의 團結의 상징으로서 地理教育을 확대하고 強化하는데 공헌하였으며, 일반교육에서의 地理를 중심적인 위치로 되돌리고 소생시키는데 모두 동의한다는 증거였다(Morrill, 1990, p. 7).

### ② 西部地域의 復興運動

제 1기에 이어 서부지역은 제 2기에서도 활발한 부흥활동을 전개한다. 제 1기에는 주로 教育課程에서 地理를 부활하는 데 주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시기에는 教育課程에서 부활된 地理를 실행할 구체적인 地理資料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機會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美國 全域에서 본보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등장한 “指針書”的 5대 根本主題는 西部地域에서 地理內容을 組織化하고 教授資料를 개발하는 土臺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985년에 완성된 MCS의 初案에 따르면, 社會科를 從前의 Social Studies라는 名稱 대신에 歷史를 강조하여 History-Social Science(역사—사회과학)라고 改稱하고, 캘리포니아 모든 公立學校 9~12학년에서 (1) 美國의 歷史와 地理 (2) 世界의 歷史, 文化, 地理 (3) 美國政府, 公民, 經濟를 반드시 3년동안 가르치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각 코스의 教育課程標準들이 제시되었다(Salter, 1986). 全캘리포니아에 부과될 新教育課程에 등장한 地理內容은 歷史의 보완물과 같은 성격이 강하였지만, 아무튼 위의 세 과목 중 (1)과 (2)는 學校教育課程에서 地理가 부활하였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이 과목의 地理內容의 이해를 돋기 위한 地理教師研修가 요구되어졌다. 이에 CGA는 UCLA대학의 CAIP, NGS의 지원으로 1985년 여름에 夏季地理學校(Summer Geography Institute)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Salter, 1986), 이는 이후에 NGS가 GEP을 통해 實踐하였던 教師教育의 모델이 되었다.

1986년에는 CGA가 캘리포니아 교육국과 NGS의 재정적 후원으로 최초의 地理教育課程會議를 개최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차원의 것이었지만 미국 전역에서 K-12 教師, 大學教授, 地方 또는 州의 教育行政家가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場所의 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5가지 요인인 People, Location, Attitude, Change, Environment에서 첫머리를 따서 “PLACE Conference”<sup>9)</sup>라고 하였다. Hobbs(1987, p. 7)에 따르면, 이 회의는 참가자들에게 學校에서 地理의 再登場과 擴大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研究와 教授를 성공적으로 진행 할 아이디어들을 共有할 機會를 제공하였으며,

相互作用과 討論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K-3, 4-6, 7-9, 10-12의 4단계로 나눈 학년 수준별 월 산, 특정 학년에서 성공적으로 가르쳐진 授業을 보여주는 示範授業, 大學教授들에 의한 전문학술적 發表, 基調演說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성공적인 회의에서 발표된 地理教授材料들과 論文들은 정선되어 “The Essence of PLACE”라는 選集(Hobbs, 1987)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1987년 최종적인 MCS안이 확정되자, 그 속에 포함된 地理內容의 學習을 위한 여러 종류의 資料들이 만들어졌다. 교수모델로는 “美國의 歷史와 地理”과목에서 西部로의 膨脹期에 있어서 地理와 歷史的 사건들 간의相互作用을 설명한 다음 그 학습을 위해 M.T. Matherly와 W. Wayne Harman이 고안한 地理學習活動을 제시한 “Geographic Perspectives on American Westward Expansion”<sup>10)</sup>이 있고, 教師用指針書로는 History-Social Science 教育課程 전체들과 그 발췌문, 학년 수준별로 제시된 話題(topics), 각각의 topic에 관련된 학생들의 學習活動의 범위를 5대 根本主題에 따라 學習機會로 제시한 “Geography in the California Framework”<sup>11)</sup>가 있다. 한편 지리내용이 담긴 “美國의 歷史와 地理”, “世界의 歷史, 地理, 文化”的 두 과목에서 5대 根本主題, 地理의 思考技能, 地理學의 下位領域들과의 관계들을 설명하는 안내물인 “Geographic Themes in United States and World History”<sup>12)</sup>가 만들어졌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된 지리 교육과정 회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1987년에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지리교육과정회의인 Western PLACE conference<sup>13)</sup>가 개최되어, 일반대중과 학생의 “地理的 文盲”(geographic illiteracy)에 대한 과응방안과 학교에서의 지리교육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西部地域에서 개최된 일련의 地理教育課程會議, 地理教育課程 개선을 위한 教師用指導書, 教授모듈, 地理內容 안내물의 작성, 교사 교육 프로그램인 하계 지리학교와 교사조직인 Alliance는 美國 全域의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에서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으며, NGS의

GEP은 이들을 참고하여 5가지 行動戰略을 세우게 된다.

### ③ NGS의 GEP

NGS는 “危機의 國家” 보고서와 “地理教育指針書”를 접하면서 NGS의 회장 Gilbert M. Grosvenor는 美國全域의 교사에게 地理의 知識을 擴大하고 傳播하기 위해 1985년에 地理教育프로그램(이하 GEP: Geography Education Program)을 만들었다. GEP(1991, p. 5)는 철저한 實踐爲主의 접근을 중시하였으며, 첫해인 1985년에는 2개의 實驗學校(Washington D.C.의 Alice Deal Junior High School과 L.A.의 Audubon Junior High School)의 運營과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Alliance와 같은 組織을 全國的으로 확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실험학교를 통해서는 地理教育의 復興에 가장 중요한 因子가 학교 현장의 教師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캘리포니아의 Salter夫妻(Christopher Salter와 Cathy Riggs-Salter)의 도움으로 전 미국에서 8개의 Alliance를 組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經驗을 바탕으로 GEP(1991, p. 9)는 1986년부터 매우 체계적이고도 대대적인 지리교육개선을 위한 活動戰略을 세웠는데, 그 核心戰略은 1) 教師들의 뿌리조직의 形成(grass-root organization) 2) 教師教育 3) 大衆의 地理認識強化 4) 地理教育資料의 개발 5) 意思決定過程에의 接近과 弘報였다.

GEP의 “1985~1990 報告書”(1991)를 토대로 5가지 核心戰略 중 3)과 5)는 다음 소절 속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1)과 2)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자.<sup>14)</sup> 먼저 教師들의 뿌리 組織의 形成過程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Alliance를 典型으로 하여 각 州(state) 또는 區(district) 단위로 大學教授, 教師, 教育行政家 등 地理教育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Alliance를 조직하였다. 이는 大學에 근거지를 두는 뿌리조직이면서도 地理學者와 같은 내용전문가와 現場教師의 經驗을 결합시키는 求心點이 되었다. 각 Alliance는 1~2명의 調整官(coordinator)에 의해 活動프로그램이 조정되며, 地理教育課程의 變化를 촉진시키기 위해 研修나 각 Alliance의 會報를 통하

## 1980년대 이후 美國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

여 教師들에게 地理授業에 필요한 教授方法, 地理的 知識 및 技能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한다. 1986년에 8개로 시작된 Alliance Network은 대년 7개씩 증가하여<sup>15)</sup> 1993년 초에는 美國 30개주 전체에 Alliance가 설치되었고 현재 총 54개에 이른다(GEP 1991, p. 18; GEP Update 1992 Fall, pp. 6-7).

두번째의 戰略은 教師教育으로서(GEP, 1991, p. 22), GEP은 프로그램의 성공여부가 2세교육을 달고 있는 教師에게 있다고 보고 教育課程改革에서 教師教育을 매우 중시하였다. GEP의 教師教育 프로그램은 4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각 Alliance의 夏季地理學校를 출업한 우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NGS본부에서 1개월 동안 실시하는 夏季地理學校(이하 SGI: Summer Geography Institute)이다. 그 내용은 教室講義, 踏查, 컴퓨터훈련 등을 통하여 地理知識과 새로운 教授方法과 資料를 익히는 것이다. 둘째는 각 Alliance가 실시한 夏季地理學校를 출업한 교사들 중 특히 강한 지도력을 잠재한 교사를 대상으로 역시 NGS 본부에서 3주간 실시하는 指導力養成課程(이하 ILI: Instructional Leadership Institute)이 있다. 이들 두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출업한 교사는 교사—상담자(teacher-consultant)가 된다. 셋째, NGS 본부에서 실시하는 SGI를 모델로 하여 각 지역의 Alliance에서 조정관(coordinator)과 5명의 교사—상담자를 중심으로 2주 이상 동안 실시하는 Alliance 夏季學校(이하 ASGI: Alliance Summer Geography Institute)<sup>16)</sup>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lliance를 갖지 못한 주나 새로이 Alliance를 창설하는 地域 또는 전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地域에서 5대 근본 주제를 통해 지리교육의 근본원리를 지도하는 日日 월요인 TGP(Teaching Geography Project)<sup>17)</sup>가 있다.

지금까지 GEP의 教師教育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받은 教師의 수(GEP, 1991, p. 24; Pitzl, 1992, p. 74)는 SGI와 ILI를 합하여 약 600명, ASGI가 약 5,500명, TGP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월요인에 참가한 初·中等學校 教師는 총 15만 7천명에 이른다.

### ④ 地理的 無知와 地理認識의 強化

1984년에 “指針書”가 발표되고 1985년에는 GENIP가 形成되었지만, 이때까지도 高等學校 출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서 地理를 요구하는 州는 하나도 없었다(Lanegran, 1991, p. 47). 그리고 1984년 North Carolina(Chapel Hill)대학 地理학과의 학과장인 R.J. Kopec이 대학생들의 地理知識을 1950년과 동일한 문제를 사용하여 당시의 地理知識 水準과 比較調查를 실시한 결과 “아마존강이 흐르는 나라는?” 문항의 경우 1950년 당시 77.5%가 정답을 답해지만 1984년 학생들의 단지 27%만이 正答을 내었으며, 또한 Texas주에서의 한 조사는 國民學校 학생의 20%가 백지도에서 브라질을 美國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며, 中美를 구소련으로, 캐나다를 아프리카로 표시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은 학생들의 地理의 無知와 地理의 열악한 地位에 대한 調査 및 언론보도들은 地理教育 및 一般教育關係者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一般 大衆에게는 地理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부활시켰다.

1987년 7월 美國 上·下 兩院은 13개로 된 合同決議案을 통하여 1987년 11월 15일에서 21일 사이를 “地理認識 強化週間”으로 설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13개 항의 決議案(NGS, 1987)은 몇몇 조사결과 나타난 地理의 無知, 初·中等學校는 물론 대학교에서의 地理의 危機, 그리고 영국, 캐나다, 구소련 등 선진국에서 基礎科目으로서 가르치는 국제적 현실과의 乖離 등을 지적하면서, 美國이 계속 超强大國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려면 광대한 美國 國土의 모습과 자원에 대한 體系的 知識, 人間—環境—資源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世界問題와 國가간의 關係와 같은 知識을 제공하는 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認識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地理認識 強化週間은 1987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며, 1988년부터는 매년 이 기간 동안 정해진 主題에 따른 행사를 가졌다.<sup>19)</sup>

또한 1987년 10월에, 上院의 教育·藝術·人文科學 問題 小委員會는 地理教育問題 特別公聽

會를 열어<sup>19)</sup>, NGS의 회장 G.M. Grosvenor, 클라크대학 지리학 교수 B.L. Turner, 教育省長官 W.J. Bennett, 美國科學財團 地理·地域科學部長 R.F. Abler 등 7명의 證言을 들었는데, 이들의 증언의 공통점은 차세대를 담당할 아동들에게는 環境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획득케하고 세계시장에서의 競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地理教育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한편 NGS는 1988년에 創立 100주년을 맞아一般大衆의 認識強化와 意思決定者에 대한 弘報를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 1) 地理教育을 위한 교육재단(Education Foundation)을 설립하고 2) 全國的인 地理競演大會(Geography Bee)를 실시하고 3) Gallup에 의뢰하여 地理知識의 國際比較調查(The Gallup Organization, 1988)를 실시하였다.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갤럽의 國際調查<sup>20)</sup>에 따르면, 미국은 18~24세의 경우 8개국 중 최하위를, 전 연령에서는 종합 7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美國은 청년층이 55세 이상의 인구집단보다 地理에 대한 知識이 부족한 유일한 나라임을 보여주어 次世代 教育에서 地理를 보다 강화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NGS의 地理競演大會는 점차 확대되어 1991년에는 약 3만여개 학교의 5백만여명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AAG는 1989년부터 American Express(AMEX)와 共同으로 地理教師의 教授아이디어, 학생들의 地理研究의 두 부문에 걸쳐 보다 學術的인 大會인 AMEX 지리대회를 열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과 아울러 TV, 신문 등 대중매체가 계속적으로 地理의 無知와 地理의 重要性에 대한 캠페인을 보고함으로서 지리에 關心은 全國의으로 고조되었다.

이상과 같은 地理教育을 부흥시키려는 총체적인 노력으로 環境教育, 國際理解教育 및 世界教育에서의 地理의 役割과 重要性에 대한 認識은 한 층 높아졌으며,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Social Studies 國家委員會”(이하 NCSSS: National Commission on Social Studies in the Schools) (1989)는 다가오는 未來社會에서 市民精神과 指導力を 육성하기 위한 교육에서 地理의 役割을

대폭 강화하고 空間的 觀點을 제공하는 地理가 歷史와 더불어 Social Studies의 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3) 제 3 기(1990~현재) : 大衆에서 “中核教科”로

이 시기는 제 2 기까지의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成果가 나타나 국가주도하의 國家教育課程에서 地理가 中核教科로서 자리 잡는 시기이다.

1989년에 대통령(부시)과 50주 주지사간의 Sharolottesville 教育頂上會談에서는 지방분권적인 미국의 교육제도에 최초로 國家教育目標를 부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후속적으로 1990년 1월에는 마침내 美國教育省이 國家教育目標(National Goals for Education)를 설정하여 발표하였는데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0, p. 5), 이 文書에서 제시된 6가지 目標 중 目標 3항의 학업성취에서 “2000년까지 英語, 數學, 科學, 歷史, 地理 등과 같은 挑戰的인 教科에 능력을 인정받아야 4학년, 8학년 및 12학년을 통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Social Studies와는 득립적인 지리의 位相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991년 4월 18일에는 이러한 國家教育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教育戰略인 부시 대통령의 “미국 2000: 教育戰略”이 발표되었으며, 여기에서 地理는 5대 “中核教科”(core subject)로서 재확인되었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00년까지 美國教育이 세계수준이 도달하기 위해, 중핵교과들은 학습평가와 학교운영의 기준이 될 國際學力基準(World Class Standard)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韓國教育開發院, 1991, p. 8).

이에 따라 1991년 國家평가 관리위원회(NAGB: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는 1994년의 國家評價를 위해 地理評價構造를 개발할 “地理合意 프로젝트”(Geography Consensus Project)에 착수하여, 1992년에 “1994년 NAEP 地理評價構造”(NAGB, 1992)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1988년에 NGS의 지원으로 작성된 地理評價<sup>21)</sup>가 고등학생 3,000명만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것에 비해, “1994년 地理評價構造”는 4, 8, 12학년의 地

1980년대 이후 美國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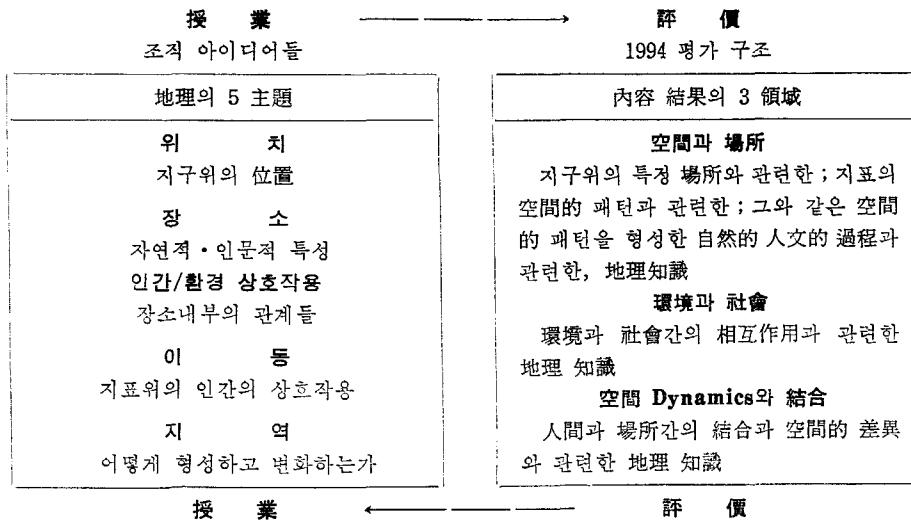


그림 3. 5 근본주제와 1994년 평가구조(NAGB, 1992, p. 19)

理評價를 위한 전체적인 틀로서 평가구조 뿐만 아니라 地理教育의 目的과目標, 地理授業의 原理, 地理의 本質 등을 함께 밝혔다. 또한 사실 위주의 地名이나 位置 중심의 地理를 극복하기 위하여, 探究와 問題解決 등을 보다 강조하면서 광범위하고도 必須의인 地理內容과 思考技能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 구조는 内容次元과 認知的(思考)次元의 2가지 주요차원으로<sup>22)</sup> 표현되었다. 이에, 内容領域은 1) 空間과 場所, 2) 環境과 社會, 3) 空間의 다이나믹스와 結合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學生들의 學習結果를 측정할 평가문항들의 개발 및 보고가 구조화되도록 고안되었다(그림 3). 그리고 “指針書” 이후에 널리 사용된 5대根本主題는 評價보다는 地理授業을 위한 강력한 内容組織者로서 인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1980년대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5대 根本主題와 地名 및 位置에 근거한 지리를 바탕으로 地理授業을 소생시켰던 성과 위에, 1990년대에는 中核教科로서 인정받음으로써 地理內容은 광범위한 地理的 知識 및 思考技能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고 地理教育의 성과를 평가할 全國的인 評價構造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Social Studies 중심의 教師教育, Global Education 등과 같은 橫敎育課程의 강력한 挑戰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 3.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爭點과 示唆點

앞 절에서 살펴본 1980년 이후 美國의 地理敎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에서 나타난 중소한 論爭點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基礎로의 復歸”와 國家教育課程에 대한 논쟁을 들 수 있다. 이는 “基礎로의 復歸”는 일 반적으로 美國의 교육논쟁에서 항상 내쳐해 있는 생활적용을 중시하는 입장과 전통적인 基礎敎育을 중시하는 입장간의 갈등을 반영한다.

이를 地理教科의 측면에서 보면, 國家敎育課程은 地理敎育의 外在的 價値를 부각시킬 機會를 제공하였고, “基礎로의 復歸”는 基礎敎育으로서 地理敎育의 内在的 價値를 正當化시켜 주었다. 즉 國際競爭力의 衰退와 같은 國家의 危機는 地理敎科의 제 2 목표 즉 道具的인 外在的 目的을 부가시켜 주었고, 基礎敎育의 強調는 모든 지식의 기초로서 地理知識의 중요성 즉 지표위의 모든 현상에 대한 綜合的이고 基本的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재인식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5대 根本主題의 性格에 대한 論爭이다. 5대 根本主題는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전과정에서 地理內容의 傳播를 위한 도구이자 教授資料를構成하는 中心的인 原理였지만, 최근에 와서 Harper(1990)처럼 5대 根本主題가 地理學을 대

표할 수 있는 것인지, 地理學의 정의로서 적합한지, Pattison이 제시한 4대 傳統과는 어떻게 다른지와 같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5대 根本主題는 地理學에 대한 공식적인 定義를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리가 국도로 약화된 미국의 Social Studies 속에서 가능하면 수업과 관련지어 地理의 本質을 설명하려는 미국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며 (Lanegran, 1991, p. 50), 전문적인 地理學者가 아닌 一般教師들이 地理學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고안된 내용조직자(content organizer) (NAGB, 1992, p. 14)이다. 즉 이는 HSGP의 中心的支柱였던 Pattison의 4대 傳統이 지리학의 연구분야 및 方法을 분류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地理授業에 시사하는 바가 적어 그 자체를 地理授業에 곧바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中山修一, 1991, p. 473), 4대 傳統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교현장에서 地理的知識과 思考를 概念化하여 일관성있게 제시해야 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적용은 우리의 학교현장의 地理授業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셋째, 地理의 文盲과 ‘場所 및 位置에 대한 地理’에 대한 것이다. 地理教育復興運動의 過程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地理的無知’ 내지 ‘文盲’이 問題視되었으나, 그 내용들은 대개 場所 및 位置에 대한 無知였다. 장소와 위치에 대한 지식이 지리 지식의 전부가 아니며 또한 그것이 지리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가장 基礎的인 地理知識이 바로 場所의 名稱이나 位置에 대한 知識들이며 그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이상의 地理의 思考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결과였다.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 본 地理教育復興運動의 展開過程과 爭點을 바탕으로 우리의 地理教育의 改善에 유의할만한 몇 가지 示唆點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理學 및 地理教育 관련단체들의 連帶와 役割分擔이 매우 중요하다. 즉 地理學 및 地리교육 관련단체들이 보여준 GENIP과 같은 공

동노력이나, NGS의 GEP와 같은 자발적인 活動은 地理教育을 改善하는데 통일적 行動, 役割分擔<sup>23)</sup>, 자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둘째, 地理學과 地理教育의 相互作用의 關係의 構築이 중요하다. HSGP 이후로 學校에서 地理가 거의 소멸하였던 것이 地理學界의 地理教育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점이나, 初·中等學校에서의 地理의 약화로 대학의 地理學科에서 질 높은 학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學校教育에서 약화된 地理의 이미지는 大學教育에서 地理의 위상도 함께 弱化시켰다는 점은 地理學과 地理教育간의 相互作用의이고 肯定的인 關係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었다. 즉 美國의 地理教育復興運動이 地理學과 地理教育간에는 共同努力과 合意過程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教師教育과 教師組織의 重要性을 들 수 있다. 특히 NGS가 地理教育의復興이 다음 세대의 教育을 담당하는 地理教師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教師教育, 地理教育 관련情報 to 교환하는 教師組織, 새로운 教授材料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결과, 오늘날에는 교사조직이 교사들간의 特とな한 連帶感의 근원이 되고 항상 새로운 地理教育을 實踐하는 求心點이 되고 있다. 地理教育의 實行에서 가장 중요한 因子는 역시 地理教師이므로, 지리학자 및 地理교육전문가들은 교사조직 및 교사교육을 통해相互作用적이고도 협조적인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職前教育과 現職教育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教育環境의 變化에의 積極的對應의 重要性을 들 수 있다. 급속히 國際化, 情報化되는 現代社會의 변화는 教育思潮 및 教育政策을 바롯해 교육의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教育은 社會·國家的 要求를 반영하여 계속 변화할 수 밖에 없으며, 教育내적으로는 目標, 內容 및 教科構造, 教授方法의 변화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사회의 爭點에 따라 그 目標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教育課程이 재구성되는 傾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統合的, 學制的, 또는

融合的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環境教育, 國際理解教育, 多文化教育, 世界教育 등의 橫教育課程 (crosscurriculum)의 등장은 종래의 전통적인 教科들의 位相과 役割을 위협하고 있다. 橫教育課程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가지 學問의 排他的 獨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결부되어 등장하는 學習活動中心 教育課程 또는 學習結果中心 教育課程에서 또한 學習結果를 달성하는 방식은 여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教科들이 과거의 排他的인 位置를 그저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地理教科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일찍이 미국에서의 Social Studies라는 統合教科 속으로 地理가 흡수된 것도 그러한 예이다. 한 教科는 時代의 變화에 따라서 그 시대에 걸맞는 知識과 思考力を 제공해 주어야 하는 역사적 산물이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教科는 생존하기 힘들 것이다.

#### 4. 結論

본고는 1980년대 이후 美國의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을 중요한 成果와 主導的 役割因子를 기준으로 제 1기 (1980~1984), 제 2기 (1985~1989), 제 3기 (1990~)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爭點과 그 示唆點들을 찾아보았다. 그 結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이후의 美國의 地理教育改革의 過程은 참가한 人的 規模, 투자된 財政的 規模, 개발된 地理教育資料의 規模面에서 보아 사상 유례없는 것이었고 매우 長期的이고도 組織的인 活動戰略과 實踐을 수반한 운동이었다. 또한 이 復興運動으로 1980년대 초에 學校教育에서 사라져 가던 地理教科가 10년 뒤인 1990년에는 國家가 중점개발할 5대 中核教科로 復活하는 동적 과정을 보여 주었지만, 일단 상실된 教科의 位相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도 잘 보여주었다. 이 復興運動은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유지된 地方分權的인 美國의 教育體制에, “基礎教育으로의 復歸”라는 教育思潮에 바탕을 둔 美國 최초의 國

家教育課程이 등장하고 핵심적인 基礎教科로 인정받은 地理와 歷史가 統合教科인 Social Studies에서 분리되는 모습을 가져왔다.

이러한 結果를 가져온 것은 外的으로는 教育思潮, 國家政策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음은 물론이지만, 內的으로는 地理學 및 地理教育 관련 단체들의 組織的인 活動計劃과 그 實踐, 外的條件들의 積極的 活用, 혼신적 個人們의 信念과 自發性이 작용한 때문이다. 그리고 地理教育의 문제는 항상 인식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成果들을 계속 유지하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에, 復興運動은 무엇보다도 體系的인 活動戰略과 그에 따른 實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 事例라고 할 수 있다. 問題의 解決은 臨機應變式보다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長期實踐戰略이 보다 유익하다.

따라서 地理教育 專門家와 같은 보다 專門化된 인력, 長期的 實踐計劃, 그리고 持續的이고도 主導的으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組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한 地理教育 改善方案의 存在有無야말로 장래 地理教科의 位相을 규정지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Graves(1987)가 1980년대까지의 地理教育研究를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처럼 한 國家의 地理教育에서 중요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반드시重要な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解決方式은 國家마다를 수 밖에 없으며, Hirst(1965)가 말한 것처럼 기준 學校의 教科가 수많은 歷史的 要因들에 의해 규정지워진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投稿 1993년 5월 25일)

#### 註

1) 中山修一(1991)은 Guideline의 重要性을 부각시켜 復興前期(1957년~1984년), 復興期(1985년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한 바 있다.

2) 地誌의 改善에 대한 노력은 1970년대 말에서야 Illinois 대학의 Alan Baker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global geography라는 用語를 사용하였다.

- 3) 우리나라에서는 新社會科로 번역한다. 그러나 그 의도와 실제 운영이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므로 social studies처럼 原語를 그대로 사용한다.
- 4) 이러한 危機感은 Hart(1982)의 美國地理學會(AAG) 회장연설에서도 잘 나타남.
- 5) Committee on Geography and International Studies, A.A.G.(ed.), 1982, *Geography and International Knowledge*가 원전이나, 본고에서는 AAG(1990, p. 1)에서 재인용.
- 6) Adler, M.L., 1982, *The Piadeia Proposal: An Educational Manifesto*,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이는 基礎的 學習에 必需의 領域들을 제시하였는데, 組織化된 知識을 획득하는 3가지 분야 중 하나로 歷史, Social Studies와 함께 지리를 득립적인 基礎學習分野로서 취급하였다.
- 7) 이 성과에 대한 論爭은 1986년 Professional Geographer의 紙面을 통해 여러 차례 전개된다.
- 8) 스코프와 시퀀스에 대한 분석은 徐泰烈(1993, pp. 203-223)을 참고할 것.
- 9) Salter(1987a, p. 8)를 참고.
- 10) Salter ed.(1987)를 참고.
- 11) Hergesheimer and Hobbs(1989)를 참고.
- 12) Salter(1987b)를 참고.
- 13) 회의결과는 Hill, D.A.(ed.), 1988, *Placing Geography in the Curriculum: Ideas from the Western PLACE Conference*, University of Colorado로 출판되었다.
- 14) GEP는 각 Alliance의 教育資料開發을 장려하고 學習計劃들을 會報인 UPDATE에 제시하였으며, Alliance, Teacher-consult, 一般教師의 地理教育 實踐을 위한 資料들도 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GEP(1991, pp. 34-36)을 참고할 수 있다.
- 15) 자세한 設立過程은 GEP, 1991, pp. 17-18. 참고.
- 16) 서울대 師範大學 地理教育科는 미네소타州 Alliance와 交換프로그램을 만들어 ASGI에 참가하였다. 1990년에는 柳在明, 徐泰烈, 임명숙, 이경연, 1991년에는 崔元會, 이경희, 손명철, 권순덕, 1992년에는 劉興植(관동대), 姜哲城이 참가하였다.
- 17) TGP를 위해 NGS는 教師用案内書인 "Teaching Geography-A model for Action"(NGS, 1988)을 만들었으며, 1991년에는 그 수정판인 "Directions in Geography-A Guide for Teachers"(NGS, 1991)를 출판하였다.
- 18) Theodore(1985, p. 67)를 참고.
- 1985년의 示範學校에서 실시한 “地理의 날”行事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주제는 1988년에는 “地理：世界에의 出入證”, 1989년에는 “地理：우리 環境에의 열쇠”, 1990년에는 “地理：世界의 窓”, 1991년에는 “地理：새로운 探險世界”, 1992년에는 “地理：물에 대한 省察”이었다.
- 19) G.M. Grosvenor et al., 1987, “Testimony before the Senate Subcommittee on Education, Arts, and Humanities Oversight Hearing on October 29”(中山修一, 1989, p. 8 再引用).
- 20) The Gallup Organization, 1988, *Geography: An International Gallup Survey*. 대상국은 스웨덴, 舊西獨, 日本,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英國, 멕시코, 美國이었다.
- 21) ETS, 1988, *Geography Objectives—1988 Assessment*, The Nation's Report Card, NAEP. 이 評價물을 이용하여 高等學校 學生을 상대로 행한 評價項目結果는 Russel, Allen et al., 1990, *The Geography Learning of High Seniors*, NAEP으로 출판되었다.
- 22) 認知的 次元의 것은 1988년 평가틀의 知識, 理解, 適用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內容의 次元은 系統的 學問分野를 강조하여 1988년의 것보다 統合의 으로 제시하였다.
- 23) 教師教育面에서 보더라도 NGS가 주로 現職教育을 담당하였으며, AAG는 職前教育을 담당하였다. 특히 AAG는 職前教育을 위한 地理入門 코스 7종류를 개발하였다(AAG, 1990, *The Introductory Course in Geography for the Preservice Teacher*).

## 文 獻

郭相萬・金英駿 編著, 1989, 教育課程 國際比較研究, 韓國教育開發院.

徐泰烈, 1993, 地理教育課程의 內容構成에 대한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韓國教育開發院, 1991, 美國 2000: 教育戰略.

中山修一, 1991, “アメリカ合衆國における地理教育復興運動の動向,” 人文地理, 43(5), 460-477.

Gardner, D.P., 1986, Geography in the School Curriculum,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6(1), 1-4.

1980년대 이후 美國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

- GENIP Committee on K-6 Geography, 1987, *K-6 Geography*.
- GENIP Committee on 7-12 Geography, 1989, *7-12 Geography*.
- Geography Education Program, 1991, *Five-Year Report: 1985~1990*.
- Graves, N.J., 1987, Research in Geographical Education, *New Zealand Journal of Geography*, 84, 15-18.
- Harper, R., 1990, The New School Geography: A Critique, *Journal of Geography*, 84, 15-18.
- Hart, J.F., 1982, The Highest Form of Geographers's Ar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2, 1-29.
- Hill, A.D., 1981, A Survey of the Global Understanding of American College Students: A Report to Geographers,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3(2), 237-245.
- Hirst, P.H., 1965,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in R.D. Archambault (ed.), 1972, *Philosophical Analysis and Educ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11-138.
- Hobbs, G.L.(ed.), 1987, *The Essence of Place: Geography in the K-12 Curriculum*,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Joint Committee on Geographic Education, 1984, *Guideline for Geographic Education*, NCGE & AAG.
- Lanegran, D.A., 1991, Geograph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Past, Present and Future,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1,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NU, 43-58.
- Lanegran, D.A. and Palm, R., 1973, Geography in Everyday Life, in D.A. Lanegran and Risa Palm(eds.), *An Invitation to Geography*, McGraw-Hill Co, 1-13.
- Lewis, P., 1985, Beyond Descrip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5 (4), 465-478.
- Morrill, R.W., 1990, What is GENIP, *Perspe-*  
*ctive*, 19(2), NCGE, 6-7.
- NAGB, 1992, *Geography Assessment Framework for the 1994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Geography Consensus Project,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 National Geographic Society(ed.), 1987, *One Hundred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n-Joint Resolution*, (Folding Sheet).
- Natoli, S.J., 1984, The Invisible Geography Teachers and the Profession,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6(1), 89-92.
- Natoli, S.J.(ed.), 1988, *Strengthening Geography in the Social Studies*,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tudies, Bulletin, 81, NCSS.
- NCSS, 1989, *Charting A Course: Social Studies for the 21st*.
- Patrice, S.P., 1989, *Text Assessment in Geography: Interpretive Analyses of Standard Geography Textbooks*, 7-12, GENIP
- Pitzl, J., 1992, Recent Development in Geographic Education, *The Seoul National Univ.,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 67-86.
- Salter, C.L., 1986, Geography and California's Educational Reform: One Approach to a Common Caus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6(1), 5-16.
- Salter, C.L., 1987a, *Coming to grips with a sense of place*, in Hobbs, G.L.(ed.), 1987.
- Salter, C.L., 1987b, *Geographic Themes in United States and World History: An Integration of Fundamental Geography into the Basics of the American Curriculum*, Scroll.
- Stutz, F.P., 1985, Enhancing High School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37 (4), A.A.G., 391-395.
- Theodore, S., 1985, Geography, a lost art, *The New York Times*, January, 15.
-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0, *National Goals for Education*.

## Renaissance of Geograph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80: Its Dynamic Process and Implications to Geographic Education in Korea

Tae-Yeol Seo\*

### Summ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nprecedented reform movement of geograph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80 and extract some implications from this movement for geographic educat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history of this movement was reviewed through following three stages.

In the first stage(1980~1984: from "HSGP" to "Guideline"), the voluntary improvement movement appeared at California and the organizational movement began in 1982 such as the Committee on Geography and International Knowledge. The national educational reform imperatives, presented at "A Nation at Risk", and "Back to Basics" movement provided good opportunities to resurrect geography as a basic subject. For next real resurrection movement, the very important document "Guidelines for Geographic Education" was published at 1984.

In the second stage(1985~1989: from "Guidelines" to "Public"), the "Guideline" gave powerfull motives and foci for reconstructing the contents of geography, especially by the five fundamental themes(Location, Place, Relationships within Places, Movement, and Region). Also GENIP as the symbol of unity of all four major geography organization(AAG, NCGE,

NGS, AGS) contributed to expanding and strengthening geography education. Also Geography Education Program of NGS was a smart and well organized program to improve geographic education through it's five strategies: Grass-roots organization(Alliances), Teacher education, Public awareness, Educational materials development, Targeted outreach to education decision-makers. In the late 1980s, the last focus of movement was the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decision-making.

In the third stage(1990-present: from "Public" to "Core Subject"), the initiative pendulum swung from geography organization to nation curriculum. In this National Curriculum, Geography was approved as a "Core Subject" and The 1994 National Geography Assessment Framework was constructed to assess the outcome of student's education in geography in grades 4, 8, and 12.

Some Implications extracted from the process and contents of renaissance movement of geograph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80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the importance of the unity and target assignment among the geography organization.

Second,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cademic geography and school geography develops each other.

Third, teacher education, including pre-service education and in-service education, is a key

\*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1980년대 이 후 美國 地理教育 復興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

ele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geography. And teacher organization is a good clearing house to exchange information for good geography.

Forth, the positive and active response to changes in societies such as globalism and internationalizing, national education policy, and the trend of pedagogy is needed to rejuvenate geographic education.

Above all, we need to establish a well organized and powerfull program, sophisticated activities strategies, and long-term implementation plan if we want more and better school geography.

**Key Words:** “Guideline”, GENIP, GEP, Geography Assessment Framework, Longterm Implementation Plan.